

청년들이 전주시 청년정책 만든다

전주시, 제2기 청년희망단 정책제안 발표회·평가 진행... 우수 제안 사업화 추진

전주시는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6일 한국전통문화재단 교육실에서 전주시청 청년들과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시의원, 교수,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발표회를 가졌다.

청년희망단은 청년이 희망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시각에서 전주시청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주시청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정책제안 기구로 지난해 9월 제2기가 구성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청년희망단 2기 단원들이 6개 팀으로 나뉘어 매월 2회 이상의 모임과 조사, 소통 활동을 통해 발굴한 각각의 제안 사업을 발표, 12개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먼저 '일자리소통' 팀의 경우 구직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기관 선호도 설문조사와 선호 기관의 실무자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우수기업 실무자 취업토코소' 사업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들이 자신의 근무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년문화예술' 팀은 창작한 지하보도를 문화 예술인들의 참여와 홍보로 변화시키는 '전북대 지하보도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전북대 지하보도를 구인공고와 청년문화예술 공연연립관 등 청년정보가 넘치는 공간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희망단은 △청년의 고민 상담을 위한 희망우체통 사업 △청년플랫폼 구축 △모바일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발표된 제안 사업과 아이디어에 대한 청년정책 전문가들의 심사와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선호도 조사 점수를 합산 후 우수제안자를 시상, 발표된 제안 사업과 아이디어를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실무부서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저소득 아동 정서지원 서비스

드림스타트, 모래놀이치료·음악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는 모래놀이치료와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정서 안정에 힘을 기울인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센터 내에 모래놀이실과 음악치료실을 개소하고 이달부터 총 32회기에 걸쳐 모래놀이치료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래놀이치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에 제한이 따르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아동들은 내면의 감정을 상담사에게 표현하며 정서적인 안정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음악치료의 경우 자존감이 낮

고 또래관계가 어려운 아동들을 소그룹으로 구성해 진행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악연주와 노래, 음악 감상 등의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등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선별된 고위험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 회기마다 부모 상담을 필수로 실시, 아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 내 양육자의 변화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은 "모래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통해 참여 아동이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표현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소양교육 가져

전주시는 6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노인사회활동 참여 어르신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주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참여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어르신들의 결의를 다짐하는 합창 구호와 선서문 낭독에 이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웰다잉을 통한 행복한 삶 만들기'를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이와 관련 올해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공익활동형(5624명) △시장형(881명) △인력파견형(662명) 등 3개 분야 138개 사업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2701명)을 통해 총 986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무조건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1일 3시간 이내(월 30시간), 주 2~3회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오는 11월까지 참여하게 된다.

또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의 경우 운영 수익률 및 고용된 기업의 근로 대가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거리환경개선사업 △지역아동연계사업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강사파견 △거동불편 노인을 돌보아주는 노노케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순중 부시장은 "사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는 6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노인사회활동 참여 어르신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주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을 가졌다.

전주시설공단, 고객과 현장 간담회 실시

전주시설공단은 2월 2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배드민턴, 인라인, 수영, 승마 등 종목별 시민과의 열린 소통 및 공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시 불편·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 개선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지난 27일 개최한 화산체육관 배드

민턴 현장 간담회는 11명의 이용 고객들이 참석, 화산체육관 이용 관련 불편사항, 특히 시설 노후와 개선 대책 등 여러 의견들을 개진했다.

정성환 이사장은 "리모델링 사업 시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보수와 환경개선을 시행할 것"이라며 "공단이 늘 고객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소통과 협력으로 고객 만족 공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덕진구, 자동차관리사업체 1분기 지도점검 추진

덕진구에서는 자동차 매매업체·정비업체·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 506개소에 대해 2018년도 1분기 지도점검을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담당공무원과 관리사업체 조합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합동 지도점검으로 전반적인 운영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등록기준 및 작업범위 준수 여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금지행위, 고지 및 관리의무 준수, 기타 관련법규 이행 여부이다.

적발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에 따라 고발하거나 영업정지·과징금부과·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북 문화계 미투 운동 확산...피해자 또 나와

전주의 한 극단 여배우 A씨, "예전에 소속됐던 극단 대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전북 문화계에 '미투(# 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배우가 또 나왔다.

전주의 한 극단 여배우 A씨는 6일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전에 소속됐던 극단 대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5일 새벽 술자리를 마치고 B씨가 억지로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갔다"면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B씨는 엄하고 무서운 선배였다. 이리저리 말하고 뿌리쳤지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끌었다"며 "그는 처음부터 성폭행 할 생각이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한 뒤 모텔을 빠져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 사건 이후 극단을 나왔다. B씨는 내가 나간 뒤 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렸다"며 "정신적 충격이 커 힘든 안 연기를 할 수 없었다. 자해를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또 "그 사람에게 쏘아야 할 원망이나 자신을 향한. 지난해까지 자해를 멈추지 못했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을 때 몸이 떨렸다"며 "지금도 여전히 영위하지 못하고 있어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미투 운동 참여 이유를 말했다.

뉴스는 B씨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뉴스

숨진 직장동료 아내 성폭행한 6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숨진 직장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한 A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직장동료의 부인이던 B(40대)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내가 널 좋아하는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며 강제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남편이 죽은 뒤 접근했다가 거부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